

재선 도전 vs 설욕전...다자구도 형성

김희수 군수 올해초 민주당 복당...경선전 치열 할 듯

진도군수

진도군수 선거는 재선을 노리는 김희수 군수를 중심으로 여권 후보군과 공직자 출신 인사들이 속속 이름을 올리면서, 치열한 경쟁 구도가 예상되고 있다.



김희수 김인정 김희동 이재각

현재 민주당 김인정 전남도의원, 김희동 전 전남도의원, 이재각 전 총북지방병무청장 등의 출마가 점쳐지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프리미엄을 안은 김희수 군수는 출마 의지가 확고하다. 무소속으로 수차례 도전 끝에 2022년 군수에 오른 그는 올해 초 더불어민주당에 복당하며 내년 경선 참여가 유력하다. 1974년 공직에 입문해 군내·조도·지산면장과 진도읍장, 농수산통과과장 등을 지내며 행정 경험을 쌓았고, 청렴한 이미지와 지역 인맥을 강점으로 꼽힌다. 민선 8기 들어 군 예산의 30% 이상을 농수산업에 투입해 농·수산업 기반 확충과 유통망 확보, 해외시장 개척 등에서 가시적 성과를 냈다. 그는 "농수산업을 진도의 미래 성장 축으로 키워내겠다"는 의지를 거듭 강조한다.

김인정 전남도의원도 강한 출마 의지를 드러냈다. 6~8대 군 의원을 거쳐 현재 12대 도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현안 해결 능력으로 주목받는다. 최근 도정질문에서 물길 가공 시설 부족 문제를 지적해 총 200억 원 규모의 개선 예산을 확보한 것이 대표적이다. 김 의원은 "가공·유통 구조를 고도화해 진도의 미래 먹거리를 확보하겠다"며, 현장에서 체감되는 민생 공약을 통해 지지층 확대에 나서고 있다. 그는 또한 지역 균형발전

과 생활 인프라 확충을 균형 핵심 과제로 제시한다. 김희동 전 전남도의원은 행정·의정 양면을 두루 경험한 인물이다. 진도군 기획예산실장 출신으로 도의회에 입성 후 '고령 농업인 삶의 질 향상 조례안' 등 다수의 조례를 발의했고,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해양관광 활성화를 넘어민 복지 향상에 방점을 두며 군민과의 소통을 강조한다. 김 전 의원은 "지방재정과 입법 모두 경험한 만큼, 현안을 제도적으로 풀 어낼 준비가 돼 있다"고 강조한다.

군 출신의 이재각 전 총북지방병무청장은 독특한 경력을 강점으로 한다. 육군 준장으로 전역하기까지 34년간 국방과 정부 요직을 두루 거쳤고, 전역 후에는 명지대 객원부교수로 활동했다. 병무청장 시절 소통 중심의 리더십을 평가받은 그는 중앙정부와의 연결고리를 무기로 국책사업 유치와 조직 관리 능력을 강조한다.

특히 이번 선거는 더불어민주당 공천 경쟁이 최대 변수가 될 가능성이 높다. 현재 구도에서는 같은 당 내 다자 대결 구도가 불가피하다. 조지력과 지지층 기반, 중앙당과의 연결망 등이 경선의 주요 변수가 될 전망이다. 이현규 기자 gnnews1@

사면 복귀·돌풍...요동치는 선거판

박우량 피선거권 회복...민주당내 경쟁자들 간 각축전 전망

신안군수

내년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신안군수 자리를 둘러싼 경쟁이 본격화하고 있다. 특히 박우량 전 군수가 8·15 특별사면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하면서 선거 판도가 급격히 요동치는 분위기다. 이번 선거는 박 전 군수의 복귀를 기점으로 민주당 내 다자 경쟁, 조국혁신당의 도전, 무소속 출마 등 변수가 얽히며 혼전 양상이 예고된다.



김문수 김태성 박우량 박석배

박 전 군수는 제25·26·28·29대 군수를 지내며 햇빛연금 등 에너지 기본소득 정책을 앞세워 전국적인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군청 임기제 공무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올해 3월 대법원에서 징역형을 확정 받고 군수직을 상실했다. 지방자치단체장으로서는 매우 이례적인 사례로, 직위를 잃은 지 5개월 만에 사면·복권을 통해 선거 출마 자격을 회복했다.

정치권에서는 이번 사면을 두고 "대선 당시부터 예견된 수순"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재명 대통령이 후보 시절 직접 박 전 군수의 '햇빛연금' 정책을 호평하며 "국가정책 차원에서 검토할 만하다"고 언급한 바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민주당 당규는 금고형 이상 확정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천 부적격 처리 하지만, 사면복권으로 피선거권을 회복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박 전 군수의 경선 참여에는 제도적 걸림돌이 없다.

민주당 내에서는 김태성과 김문수를 중심으로 다른 후보들과의 경쟁 구도가 짜이고 있다. 지난 총선때 서삼석 의원과 영암·무안·신안 지역구를 놓고 경쟁을 펼친 김태성 전 육군제11기계 화보병사단장은 강한 추진력과 조직 관리 능력을 바탕으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최근 광남일보-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박우량 전 군수를 누르고 신안군수 지지도 1위를 기록하며 돌풍을 일으켰다. 군 경력을 통해 다져온 리더십과 결단력이 신안군의 미래 전략과 맞물리면서 새로운 대안으로 부상하는 분위기다.

김문수 전남도의원은 의정 활동 경험이 풍부하고 지역 기반이 탄탄하다. 도의회에서 농수산·해양 정책을 다뤄온 만큼 지역 현안을 꿰뚫고 있다는 점이 강점이다. 당내에서는 안정감과 실무 능력을 두루 갖췄다는 평가를 받으며 꾸준히 지지층을 확보해왔다. 김 의원이 광범위한 조직력으로 표심을 결합할 경우 경선에서 강한 존재감을 발휘할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이외에도 김행원 신해양발전위원장, 박석배 전 aT 상임감사, 임흥빈 전 전남도의원 등이 도전에 나섰다. 정광호 전 전남도의원도 현장 중심 행정을 앞세워 표심을 파고들고 있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명절 전후 불법 행위 차단...선관위, 무관용 원칙

금품 제공·당비 대납·택배 선물 등 집중 단속

전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선거법 위반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천명했다.

정치인들이 명절 인사를 빌미로 금품을 제공하거나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불법 행위자 적발될 경우, 최고 5억 원의 신고포상금과 함께 엄정한 처벌이 뒤따른다.

전남선관위는 내년 6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임후보예정자들의 당내 경선과 관련해 당비 대납, 택배를 통한 금품 제공 등의 불법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예방과 단속을 동시에 강화한다고 1일 밝혔다.

선관위는 정당, 국회의원, 지방의원, 지

방자치단체장, 임후보예정자 등 주요 정치 주체들을 대상으로 '허용되는 행위'를 중심으로 안내하는 한편, 광역조사팀과 공정 선거지원단 등 단속 인력을 총동원해 기부·매수 행위 등 선거범죄를 엄정히 단속할 계획이다.

추석 명절에 가능한 행위로는 △군부대 방문 위문금품 제공 △자선단체 후원금품 기부(단, 물품이나 포장지에 적성명·정당명 표시는 위법) △의례적 추석 인사 현수막 게시 △자동동보통신을 통한 인사 문자 발송 등이 있다.

반면 △경로당·노인정 등에 과일·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허용된 기부행위라 하

더라도 선거운동과 연계해 금품을 건네는 행위는 금지된다.

선관위는 "명절 인사를 빌한 불법행위는 단속의 1차 대상"이라고 강조했다.

선관위는 선거법 또는 위탁선거법 위반 시 최고 3000만 원 범위 내에서 제공받은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과거에도 명절을 앞두고 대규모 위반 사례가 적발된 바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 주요 인사 241명에게 명절 선물을 제공하다가 징역형과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공무원 902명에게 5억9000만원 규모 과태료가 부과된 사건이 대표적이다.

또 지방의원이 70여 명에게 168만원 상당 과일을 택배로 제공하다 벌금형과 1680만원의 과태료를 받은 사례도



추석 명절 현수막 인사 추석을 앞두고 1일 오전 광주 북구 신안동 한 횡단보도에 정치인들의 추석인사 현수막이 걸려있다. 최기남 기자 bluesky@gwangnam.co.kr

있었다. 전남선관위는 추석 연휴 기간에도 비상 연락체계를 유지해 위반행위 신고를 즉시 접수한다. 선관위 관계자는 "위법행위를 발견하면

국번 없이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며 "신고자는 포상금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최대 5억 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선관위는 이번 추석 단속이 내년 지방

선거의 공정성을 좌우할 변수가 될 것으로 보고, "명절이라는 특수한 시기를 악용한 선거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책임을 묻겠다"며 강력한 단속 의지를 밝혔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동요롭고 행복하고 추석

담장, 디자인에 취하라!

— 벽돌담의 품격을 더하겠습니다

본사공장 전남 완순군 이양면 학포로862(동평리 629)
Tel. 061)373-9566~7 Homepage. www.jtbl.co.kr

- ✓ 자연석같은 진공 사파식문양 '동경벽돌'
- ✓ 세계최초 한국조립식 문지블럭 '제중벽돌'
- ✓ 조적, 돌갈 등 별도의 잡 자재가 필요없이 셀프시공이 가능한 '키어블럭'
- ✓ 담장 조정 각종 건축인테리어블럭

신체품

키어블럭 (조립식조경용)
PCT국체특허출원

풍경벽돌패쇄형 담장

벤스형 담장

한식기와형 담장

체스블럭 담장

기어블럭

NAVER 뉴정원산업